

중동전 여파에 석유류 물가 광주 9.6%·전남 9.0% 급등

전국 평균 상승률은 밑돌아... 대구 11.7% 최고 최고가격제로 충격 완화... 광주 휘발유 1820.62원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9%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광주와 전남에서 작년 동월보다 각각 9.6%, 9.0% 급등했지만 전국 평균(9.9%)보다 낮았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11.7% 오른

대구였다. 이어 인천(11.2%), 울산(10.9%), 충남·전북(10.8%), 대전(10.6%), 경기(10.4%), 경남(10.2%), 부산(10.1%)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5.4% 올라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7.9%로 제주 다음으로 낮았다.

지난달 전국 석유류 물가는 9.9%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0.39%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반영됐다.

지난달 13일 시작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달 들어 2·3차 석유 최고가격제 상한이 높아지면서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로 휘발유는 광주 7.8%, 전남 7.1% 올랐다. 전국 평균 8.0% 상승하고 대구·전북에

서 9.4%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충남(9.2%), 대전(8.9%), 인천(8.7%), 울산(8.5%) 등 순이었다.

제주(3.9%)와 서울(6.1%)에서는 석유류와 마찬가지로 상승 폭이 작았다.

경유 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17.0%)보다 광주(16.2%), 전남(16.5%)이 낮았다.

대구는 19.3% 올라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인천·울산·충남·전북·경남이 18%대로 뒤를 이었다.

다만 단순히 상승률을 비교하기에는 기존에 가격이 비쌌던 곳에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가격으로만 비교하면 서울이 가장 비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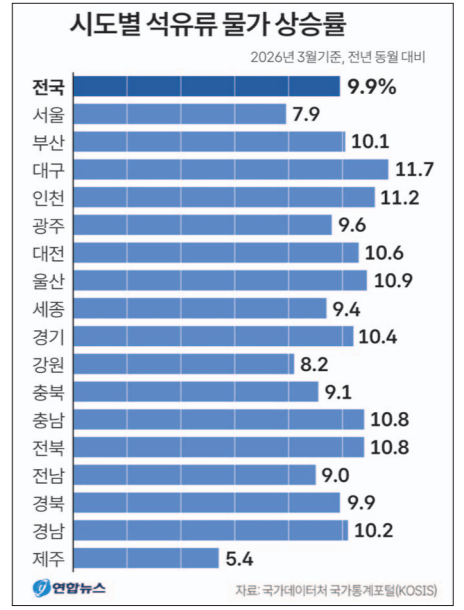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광주가 1820.62원으로 부산(1815.44원) 다음으로 낮았다.

전남은 1825.68원으로 전국 평균 1834.33원보다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당 1875.81원이었고, 충남(1848.76원), 충북(1845.10원), 제주(1841.02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해 시행하고 있다. 휘발유는 1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콘텐츠진흥원, 영농지원 발대식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3일 나주시 및 유관기관, 범농협과 함께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나주배달물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범농협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지역 농가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발대식 이후 참여자들은 나주시 금천면 일대 농기로 이동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사학연금-도산림연구원, 지역 상생 협력

산림치유 자원 활용·환경보호 활동 전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은 지난 13일 나주시 다도면 소재 산림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산림연구원(이하 산림연구원, 원장 오득식)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환경·사회·투명(ESG) 사회공헌 및 지역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학연금의 참여 기반 사회공헌 역할을 바탕으로, 교직원 및 취약계층까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산림연구원이 보유한 산림치유 자원 및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림치유 체험, 환경보호 활동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산림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숲길 정화 등 환경보호 활동 △지역 학생·교직원 등 사회공헌 대상자 및 사학연금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직원 참여형 환경·사회·투명(ESG)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하중 이사장은 "산림연구원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자원과 치유·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남광주농협, NH생명 연도대상 '최상위그룹'

건강보장성보험 부문 '1위' 선정 "튼튼한 금융 파트너 역할 강화"

남광주농협은 최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상위 그룹(A1)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NH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국 1100여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생명보험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무소와 임직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단순한 판매 실적을 넘어 조합의 신뢰도와 경영 성과,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가린다.

남광주농협은 이번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A1) 1위를 비롯해 건강보장성보험 부문(그룹1) 1위, 우수 학습조직(그룹3) 경영진 부문 2위를 차지하며 돋보이는 경영 성과를 보였다.

이영종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의 헌신과 조합원·고객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실익 지원을 확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고객과 조합원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남광주농협은 최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상위그룹(A1)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수협중앙회, 전국 신입 233명 일괄 채용

23일까지 접수... 전남 9곳 회원조합 38명 선발

수협중앙회는 전국 회원조합의 하반기 일괄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직원을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괄 공개채용은 면접전형의 제외된 모든 채용 절차를 중앙회가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원조합별 개별 채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채용에는 전국 56개 회원조합이 참여해 총 23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일반관리계 219명(일반 209명·보훈 10명)과 기술·기능계 14명이다.

권역별 선발 인원은 회원조합 본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늘 1곳 5명 △경인 4곳 19명 △강원 9곳 26명 △충청 3곳 8명 △전북 3곳 12명 △전남 9곳 38명 △경북 4곳 18명 △경남 12곳 44명 △부산 6곳 33명 △제주 5곳 30명이다.

지원 자격에는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으며, 원서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후 같은 달 16일 서울에서 필기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전 분야 공통으로 인성검사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포함된다. 일반관리계 지원자는 민법, 회계학, 경영학, 수험법, 상업경제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전공시험을 치른다.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회원조합별 인성·실무 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6일 발표된다.

근무 지역과 세부 채용 조건 등은 수협 중앙회 및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오비맥주, '생맥주 관리자' 자격 도입

품질 관리 표준화 추진... 고용노동부 인증 기반

오비맥주는 생맥주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맥주 관리자(MDM·Master Draft Manager)'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맥주의 위생과 품질 관리 기준을 표준화해 외식업소의 품질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형태의 공신력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발성 교육과는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자격 취득 과정은 심층 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시험과 현장 실기 평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생맥주 공급망 세척, 공급라인 세척, 탄산 압력 조절, 전용 잔 관리,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관 방식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기술을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현장 실기시험을 통해 단순 암기를 넘어 실제 운영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



무 능력을 인증한다.

오비맥주는 생맥주 품질관리 업체(주) 노곤과 협력해 교육과 인증을 운영한다. 자격 취득자에게는 인증서와 매장 부착용 표식을 제공하고, 매장 운영에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장비와 마케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격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MDM 생맥주 관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 중기 4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휴인 '디자인형 울타리'·티지에프 '편수 칼라관' 등

광주지방조달청은 14일 '20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전남지역 4개 제품이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제품은 △휴인 주식회사(신안군)의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를 이용해 하중 저항 및 직립능이 우수한 디자인형 울타리' △티지에프(순천시)의 '무클램프 이탈방지 기능을 갖는 편수 칼라관' △현시회사 현시스템(나주시)의 '무용접 모듈형 일체구조 금속제 패널시스템' △ ㈜조은테크(장성군)의 '내진보강형 불연 천장 판넬시스템'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기술과 품

질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로,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판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우환 청장은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신협, 가상광고·PPL로 '어부바' 매력 전한다

KBO 중계·예능 '하트시그널' 통해 브랜드 노출 확대

신협중앙회는 2026년 프랏유 시즌과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방영에 맞춰 가상광고와 PPL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협은 콘텐츠 시청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와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협의 마스코트 '어부바'를 스포츠와 예능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여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정형화된 광고 방식에서 나아가 시청률과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 안에서 어부바 캐릭터를 친근하게 노출함으로써 2030 세대는 물론 다

양한 시청층과의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협은 먼저 KBO 리그 중계 채널인 MBC SPORTS+를 통해 어부바 캐릭터 가상광고를 선보인다. 경기 흐름에 맞춘 광고 연출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5'에서는 가상광고와 함께 PPL을 병행한다. 어부바 캐릭터를 활용한 연출과 함께 출연진이 신협 굿즈와 체크카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면을 통해 2030 시청층과의 공감대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